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3.02.22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뉴질랜드, HE '23년 워크프로그램부터 필라2에 참여 가능(2.17)

- 뉴질랜드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지난 '22년 12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, 협약의 서명은 '23년 중 양측의 검증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- 과도기적 합의에 따라 뉴질랜드는 '23년 워크프로그램부터 EU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참여할 수 있음

○ 유럽단일특허를 위한 연합특허법원(UPC) '23년 6월부터 운영(2.17)

- 유럽단일특허 시스템은 유럽특허청(EPO)에 단일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 걸쳐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
- 새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EPO는 1월 1일 과도기 조치를 시행하였으며, 이미 2,2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음
-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균일한 기술 시장을 확립하고, 유럽을 기업이 R&D센터를 설립하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드는 등 유럽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※ 올해는 유럽 특허 협약의 50주년이 되는 해로, 단일 특허 시스템은 1973년 이후 유럽 특허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개혁이 될 것

○ EU, 반도체칩법 및 칩공동사업에 대한 본격 협상 단계 진입(2.15)

- 유럽의회가 '반도체칩법(Chips Act)'과 '칩공동사업(Chips JU)' 등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설정함에 따라 EU 이사회와 본격적으로 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
- 칩법은 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위해 43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여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%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(현 10%)
- 칩공동사업은 호라이즌 유럽 하의 새로운 민간 파트너십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33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칩법의 필라1에 해당하는 'Chips for Europe 이니셔티브'를 주도할 것